

고창~장성 2.6km 국지도 완공 개통

대표적 위험 도로 솔재고개 대체 사업비 307억원 투입 5년 공사 접근성 개선...관광객 증가 등 기대



고창~장성 간 국지도 장대터널.

고창지역의 대표적 위험 도로인 솔재고개(고창~장성)를 대체하는 '고창-장성 간 국지도 건설공사'가 완료됐다.

7일부터 개통되는 구간(총 2.65km)은 고창을 월산리에서 장성군 북이면 문암리까지다. 그간 이용해 온 솔재고개는 겨울철 상습 결빙과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다수의 민원은 물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구간이다.

고창-장성 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기존 4.3km 장거리 우회구간을 2.6km 직선으로 신규 개설했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장대터널(970m)을 설치하는 등 도로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동 시간을 5분 단축하게 됐다. 사업비는 307억원(국비 204억원, 도비 103억원)이 투입됐고 공사 기간은 5년이다.

전북도는 이번 개통에 따라 장성군 등 전남 북서부 지역과 고창군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고창지역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고창을 석정리와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를 연결하는 '도계-장성 국지도 건설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고창군의 광역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로 안전성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내 간선도로망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소상공인 용자 이자 보전 5%로 상향

지역화폐 발행·카드 수수료도 지원

고창군이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용자 지원을 확대한다.

고창군은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 보전율을 기존 4%에서 5%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자 1인당 최대 3000만원(1년 거치 2년 상환)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용자지원 대상자도 업종의 주수기준을 삭제하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용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기금 19억5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2분기까지 1228명의 군민이 317억2600만원을 용자 받았다. 군은 19억6300만원을 이자로 지원했다.

특히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별보증서 발행에 지원된 금액은 10억1400만원이다. 이 외에도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올해에 49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소상공인을 위해 조례 개정 및 공약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군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귀농귀촌학교 21일까지 교육생 모집

선착순 30명...14일간 합숙형 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2년 하반기 귀농·귀촌 참여 교육생을 모집한다.

귀농귀촌학교 교육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30명 접수 마감하며, 교육비는 자부담 20만원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구비서류를 팩스(063-533-6799) 또는 이메일(jereturn6789@naver.com) 전송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27일까지며, 합숙형(일요일 제외) 교육으로 14일간 진행된다.

교육생은 귀농·귀촌 정책안내, 농작물 재배와 가공, 농기계 교육, 귀농·귀촌 사례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학교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완료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100시간 인정)을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533-678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학교를 알차게 운영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가치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과 농촌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농산물 가공 기술지원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0억원 확보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상품화 지원

남원시가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농가 교육과 저변확대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시가 농촌진흥청의 '2023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공모'에서 신규 사업대상 지역에 선정, 국비 포함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를 통해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시설 현대화와 장비구축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상품화를 지원한다. 가공 창업에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시제품 개발부터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가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남원시 농산물가공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의 가공식품 농가 교육 모습.

정읍시, 추석 연휴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 방역·민생 경제에 중점 추모공원 동시 인원 100명 제한

정읍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둔 추석 명절 민생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방역, 재난재해, 물가, 교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귀성객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대비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또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상담센터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 위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센터, 선별진료소 운영 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 기관 1개소와 당직의료기관 24개소, 보건소

및 진료소 41개소, 휴일 지킴이약국 19개소 등 비상 의료체계를 구축해 연휴 기간 중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방지한다.

연휴 기간 중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정읍시청 당직실과 보건소로 문의하면 되며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서비스안내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남권 추모공원의 봉안당은 동시 출입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물가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 완화와 지역 근로자의 생계안정,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 중소기업 임금체불 예방 활동, 전통시장 장보기, 농특산물 판촉 행사 등을 실시한다.

명절 연휴 귀성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교통대책반을 운영하고 터미널, 샘고을시장 등 상습 정체 지점과 병목 지점에 교통지도 단속요원을 특별 배치하며, 51개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응급진료 강화...추석 진료공백 최소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 지정

고창군이 추석 연휴 진료 공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고창군 의사회와 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들과 협조해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고창종합병원

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고창군보건소도 연휴 4일간 정상진료가 시행되며 9개 지역 보건진료소 역시 일정별로 운영된다.

일반의료기관과 약국은 신청 일자별 문을 여는 병·의원 5개소와 약국 7개소가 지정됐다.

군보건소는 의사 및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응급진료상황실을 편성·운영해 일반환자 진료 및 대량한

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복도, 보건복지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진료 가능한 고창지역 병·의원과 약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군(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고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